2026.04.22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협상 안해? 그래도 KOSPI는 엔진 달고 간다

KOSPI 6,417pt(+0.5%), KOSDAQ 1,181pt(+0.2%)

해외 시황 — 협상 취소, 그치만 또 TACO야…

- 간밤 미국 주식시장 대체로 약세(S&P500 -0.6%, NASDAQ -0.6%,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 러셀2000 -1.0%). 전일까지만 해도 미국-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으나 이란 측이 2차 협상 참석을 거부. 밴스 부통령 또한 예정된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섹터별로는 IT하드웨어, 유통, 에너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그러나 장마감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휴전 무기한 연장을 밝히며 S&P500, 나스닥100 선물 각각 +0.5%, 0.7% 상승 중.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 진행. 워시는 연준의 고질적 인플레 대응에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연준 의장으로서의 독립성 발휘를 시사

수급 — 기관 및 외국인 모두 순매도 전환

- KRX KOSPI 현물 기준 기관, 외국인 각각 4,487억원, 6,751억원 순매도하며 전일과 상반되는 수급 흐름을 시현.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도한 반면 반도체 기판, 방산, 조선 등 특정 업종에 순매수 집중. 그러나 개인 투자자 1조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 하방 지지

시황 — 장중 등락은 있었으나, 끝내 KOSPI 신고가 재차 경신하며 6,400pt선 돌파

- 금일 KOSPI 0.5%, KOSDAQ 0.2% 상승. 미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 무기한 휴전 연장 선언이 국내 증시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 다만 협상 관련 실질적 진전은 부재. 추세적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함.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된 가운데 전일 신고가를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며 KOSPI는 장중 -1%선까지 하락. 그러나 장 막판 개인 투자자 매수세 유입되며 이틀 연속 신고가 달성에 성공. 연일 신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실적 및 수주 모멘텀이 지수 하방을 지속적으로 지지. 금일 종가 기준 KOSPI 12개월 선행 P/E는 7.64배 수준으로 여전히 딥밸류 메리트

특징업종 — 시장 전반 상승 모멘텀 부재에도 개별 업종 급등하며 지수 견인

- 1) 반도체 기판: 기판 공급 부족 장기화에 따른 판가 상승 기대감 유입(이수페타시스 +21.2%, LG이노텍 +17.7%) 2) 조선/엔진: 낙폭과대 인식, 데이터센터 전력용 발전 엔진 수주 모멘텀 부각(HD현대중공업 +11.3%, 한화엔진 +11.4%, 삼성중공업 +5.9%) 3) 방산: 개별주 대형 수주 공시 및 지정학적 리스크(LIG D&A +12.2%, 현대로템 +7.2%) 4) SpaceX 관련주: IPO 기대감(미래에셋벤처투자 +21.9%, 아주IB투자 +16.8%)

이벤트 — 드디어 SK하이닉스 실적,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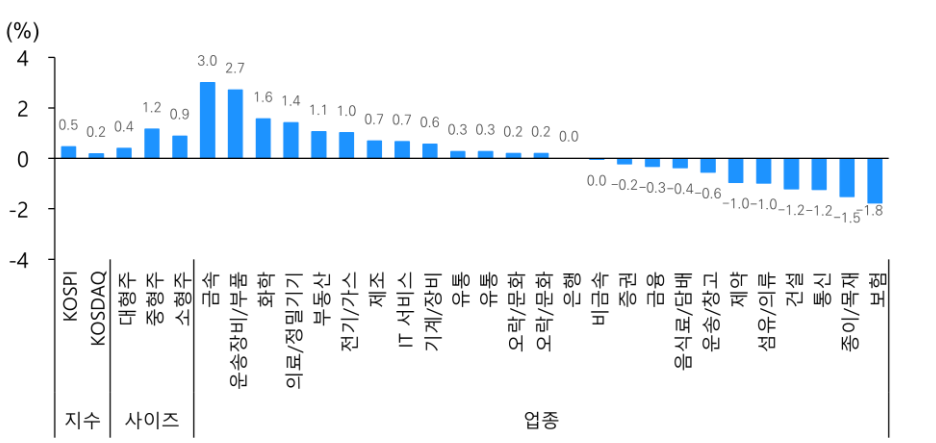
- 1) 23일 장전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발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미 36조원까지 상향된 상황. 단기 모멘텀 집중될 전망 2) 테슬라 실적(23일 오전) 3) 한국 1분기 GDP(23일 오전, 예상 YoY +2.7%) 4) 미국 S&P글로벌 PMI(23일 밤)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4,448	-3,705
외국인	-6,749	1,224
개인	12,366	3,197
거래대금	307,415	145,100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